



포커스

FOCUS

수학기호 조판 프로그램 개발 세계인쇄시장 공략

일련의 프로그램이나 발명품들은 그것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 필요성이란 것들은 때론 나라와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 일년 중 3/4이 겨울인 핀란드에서 발달한 실내 운동기구는 핀란드의 추운 바깥 날씨와 무관하지 않다.

필요성이나 나라의 특성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들이다. 기초과학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학적 연구들이 부족하다는 우리나라가 각종 수학 연산과 관련된 것들 중 세계 1위를 달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다분히 계산된 전략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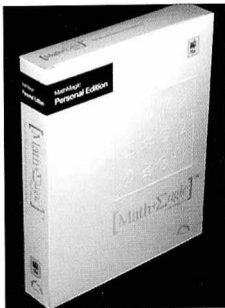
(주)엔파인(대표 이병진)의 매스매직. 각종 수학 기호를 표현하는 조판 프로그램인 매스매직은 각종 수학 교과서 편찬은 물론 연구 논문 발표에 빠지지 않고 쓰이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시장 공략을 목표로 치밀한 계산 끝에 탄생한 전략적 프로그램이다.

이병진 대표는 “개발 당시부터 프로그램을 정하기 전에 세계 시장에서 널리 쓰일 수 있는 것, 개발가능하면서도 발달하지 않은 것, 노력여하에 따라 세계 시장 톱 클래스 성취가 가능한 것 등이 우리가 개발할 프로그램 선정 기준이었다.”라며 매스매직의 세계 시장 장악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강조했다.

수식 조판과 함께 포함될 법한 계산 프로그램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계산 프로그램 쪽에선 이미 앞선 기업이 있었고, 어설픈 계산법보다는 당당한 수식 조판 프로그램으로 남기 위해서였다.

매스매직이란 수학 관련 프로그램을 고안해 낸 건 수학이 가지는 국제적 파급성 때문이었다. 세계 공용어 격인 수학이 가지는 특성상 그 파급효과가 가히 세계적인이어서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작년 한해동안 해외에서만 판매고 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에서도 이미 200여개 업체가 매스매직을 사용 중에 있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의 500여개 출판사에서 이공계 서적이거나 논문 출판에 망설이지 않고 매스매직을 선택하고 있다.

매스매직의 특징은 호환성이다. 매킨토시 제품은 물론, 고품질 인쇄에 많이 쓰이는 쿼크 등 모든 환경에서 파일 교환이 가능해 작업 결과물을 여러 사람이 쉽게 공유 할 수 있을 뿐더러 대규모 작업도 분리해서 진행 할 수 있다.

이미지 파일로 저장 가능케 한 것도 매스매직의 큰 매력인데 jpeg, gif 파일로 저장된 편집 화면은 웹 출판이 가능해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대두되는 화상교육 등 웹 문서 출력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매스매직의 가장 큰 특징은 존재하는 모든 수학적 용어를 표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정해진 룰이 없이 사용자 스스로 룰을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기존 수학 기호는 물론 수학 기호 그 이상까지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용자만의 룰은 자신만의 기호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많은 기능들 중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능들을 모아 자기만의 기호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인해 작업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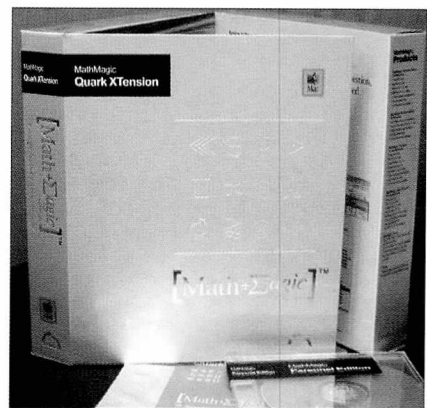
매스매직은 또 다른 도약을 위해 기존 매킨토시 쿼크에서 벗어나 좀 더 대중성을 가진 윈도우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좀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창학 이사는 "윈도우 개념까지 매스매직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윈도우 버전은 MS 워드, 한글, 훈민정음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매스매직을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 서체 디자인 팀도 결합해 수식 프로그램



◆ 이창학이사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한 엔파인의 직원들.



◆ (주)엔파인의 주력 프로그램인 수식조판프로그램 매스매직.

에 어울리는 서체 개발이 이루어진다.

윤디자인연구소에서 제공하게 될 윈도우용 서체들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트루타입용 서체와 별도 옵션으로 제공되며, 옵션으로 제공되는 서체로 출력 하고자 할 경우 출력업체나 인쇄업체는 기존 무료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서체를 구입해야 한다.

벤처기업을 표방하며 기술력 하나로 세계 시장을 장악한 엔파인. 그들이 추구하고 걸어온 길이 벤처기업의 모범답안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술력 보다 권력에 매달리는 몇몇 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의 행보는 작은 것대로 적용되기에 충분하다. Ⓞ

이용우 기자
 <photoyw@print.or.kr>